

“농기계 부채 농협이 갚아라”

정 농림장관, 농협중앙회 임직원 대상 특강

신용 부문서 매년 1조2천억 흑자

농업 이익 환원 차원서 해결해야

는 흑자를 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농기계 부채 해결’ 발언에 대해 일단 농협 측은 “정부와 농업인들이 여분을 적극 수령해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정확한 농기계 부채 현황 파악이 마무리되면 정부와 구체적 지원 형태나 기준 등을 논의해 이달 말쯤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채 해결 방안으로는 ‘영농의 규모화’ 정책 기조에 맞춰 농협이 빚을 일부 또는 전부를 갚아주고 농업인들의 농기계를 인수한 뒤, 이를 경영자의 관점에서 적시 적소에 임대해주는 방식이 겨우나 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농협이 현재 신용 사업에서 돈을 벌어 경제 사업 손실을 메우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신용 쪽에서 1조~2조원의 흑자가 보장되는 것도 아닌 만큼 신용이 적자가 나더라도 경제

거론했지만, 법적으로 손을 댈 수 없거나 슬롯이 정해진 돈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기준으로 이의 잉여금 가운데 6천500억원 정도는 새로운 사업 준비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을 고려해 법정적립금 및 일반사업준비금으로 쓰아둬야 한다. 또 1천400억원 정도는 소속 개별농협에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농기계부채 지원이 이뤄진다면 결국 ‘임의적립금’(작년 4천100억원) 항목에서 재원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도 영농자금 지원이나 신용·경제 분리 준비 작업 등에 사용될 돈이 있다.

농협 관계자는 “임의적립금 안에서 정해진 기준 사용처를 조정해 돈을 마련할지, 아니면 다른 재원 방안을 강구할지는 정부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악재 견힌 증시 “뛴다 뛰어”

어제 코스피 39%P 급등…IT·자동차·금융업종 주도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일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는 장중 40포인트 이상 뛰어오르는 급등세를 보이며 전날보다 39.94포인트(2.35%) 오른 1,742.19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650선 근처까지 회복됐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투자심리가 호전된다는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이 튼튼해 정보기술(IT), 자동차, 금융업종 중심의 상승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낙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증시 상승을 낙관하는 측에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완화돼 유동성이 주식 등 위험자산으로 복귀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UBS가 대규모 추가 상각과 함께 151억달러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고 리먼 브러더스가 40억달러 자본 확충에 성공하는 등 한때 파산 위

기까지 몰렸던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정상화가 속속 이뤄지기 있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오승훈 애널리스트는 “이제 투자자들은 투자은행들의 추가부실 우려보다 이번 대규모 상각과 자본 조달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튼튼한 펀더멘털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증시 복귀를 앞당기는 듯한 기반이 되고 있다.

지난해 LCD 패널업계의 업황 터어라운드에 이어 올해는 반도체가 상반기 중에 최악의 국면을 지나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업황 호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IT주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자동차주도 일본 경쟁업체들이 엔고에 시달리는 동안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며, 금융주는 그 동안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해 너무 저평가됐다는 인식에 외국인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산하 47개 기금 운용 평가

성과 미흡땐 예산 10% 삭감

정부산하 47개 기금의 운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금의 통폐합 등에 나설 가능성에 높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의 사업운영 부문과 자산운용 부문에 대한 평가 작업을 최근부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 평가를 위해 관계전문가 5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으며 이들은 복지노동·산업과학·연금금융·교육과학 등 4개 유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사업운용 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10% 삭감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재정부 재정기획과장은 “사업

운영 부문은 계획·집행·성과에 대해, 자산운용부문은 운용실적과 운용정책의 적정성에 대해 각각 평가한다”고 말했다. 평가결과는 기금정책심의회 의결 및 국무회의 보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재정부는 이 평가 결과가 기금의 구조조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재원과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거나 사업영역 또는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축소·통폐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평가가 기금의 존립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다양한 국산 장미

2일 오후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촌진흥청 주최로 열린 국산 장미 품종 전시회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장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건보료 체납 가산금 큰폭 준다

7월부터 …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4천곳 확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물게 되는 가산금이 큰 폭으로 떨어져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이 대폭 늘어나 맞벌이 부부나 밤에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분야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 세부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대책은 지난 3월 25일 청와대가 급격한 사회변화와 잘못된 제도상의 문제, 국가정책의 오류 등으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나오고 사람들에게 국가원수에서 재기의 기회를 줘 새출발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내놓은 ‘뉴스타트 2008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와 야간근무 부모를 위해 저녁 7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이 지난해 2천900곳에서 올해 4천곳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 해외결혼으로 태어난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대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한국어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3천명에게는 건강도우미, 주차단속보조요원 등 매달 2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된다.

예방적 건강검진서비스가 강화돼 11만5천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만 40~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진단’ 혜택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30대 그룹 투자 더 늘린다

당초 19%서 23%로 올려 … 92조원 규모

작년말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에 대해 기대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던 30대 그룹이 그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악재가 이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보다 투자 확대 규모를 더 늘리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삼성, 현대·기아차, LG, SK 등 30대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그룹은

올해 모두 92조8천3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30대그룹의 이 같은 투자계획은 지난해에 비해 23.0% 늘어난 규모로,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해 12월28일 조사 때의 투자증가율 전망치 19.1%에 비해서도 3.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작년과 사자 때 30대그룹은 모두 89조9천1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룹별로는 현대·기아차그룹이 현대 제철 일관제철소의 총 투자비 5조2천

400억원 가운데 올해 1조7천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조사됐다.

SK그룹은 SK에너지의 신규 원유경제 고도화설비 투자(총 투자비 1조8천 549억원)에 금년 4천6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LG그룹은 LG디스플레이 P8라인(총 투자비 2조 5천350억원) 건설을 위해 올해 2조1천231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행정관청의 허가가 이뤄지는 대로 제2롯데월드 건설(총 투자액 1조7천억원)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포스코는 2010년 12월까지 철강제품 이용기율 및 차세대 철단용융기술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글로벌 R&D 센터’ 건립에 2천797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삼성그룹은 이번 조사에서 구체적인 투자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외환시장 부당행위 점검”

최종경 기획재정부 차관

최종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일 “루머나 다른 수단으로 환율 움직임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일 정부가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이유 없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 외환시장에서는 하나로텔레콤 지분 매각분과 외국인의 배당금 역송금 수요에 기대 매수에 나섰던 은행들이 손절매로 돌아서면서 환율 하락폭을 기우다 당국의 구두개입으로 나폭률을 줄인 체 980원선을 지었다.

최 차관은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라며 “환율이 이유없이 루머에 의해 떨어졌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금호 인수 대한통운

7년 만에 정상운행

올 매출 2조·영업이익 1천억 목표

국내 최대 종합물류기업 대한통운이 7년 만에 법정관리를 출입하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계열사로 새출발한다. <사진>

대한통운(대표 이국동)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의 종결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01년 6월 모기업이던 동아건설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7년 만에 경영이 완전히 정상화됐다.

대한통운은 법정관리 이후에도 노사가 단결해 국내 물류업계 정상의 자리를 고수해왔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매출액 1조2천669억원, 당기순이익 760억원이라는 칭송 아래 최대의 실적을 냈다.

또 지난해 연간 1억2천242만 상자의 택배화물을 처리해 법정관리에 들어서면서 내줬던 국내 택배업계 1위 자리도 되찾았다.

대한통운은 지난달 3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M&A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법정관리 출입으로 절차상의 그룹 계열사 편입도 완료됐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은 지난 1일부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CI인 날개(Wing)를 사용하고 있다. 사명 ‘대한통운’은 그대로 유지하나, 서체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타계열사들과 같은 회색의 고유서체를 사용한다.

이와 함께 대한통운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운송 서비스를 연계해 다양한 특화상품을 선보여 올해 자회사 포함 매출액 2조원, 영업이익 1천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기아, 핸들·페달 없는 차 만들었다”

외신 ‘만우절 기사’ 눈길 … “무선게임기로만 운전”

“기아차가 핸들과 페달 조작없이 무선게임기로 조작하는 차를 개발했다.”

일부 외신들이 지난달 31일부터 기아차 뉴질랜드의 ‘선행 연구소’를 인용해 이같은 횡기적인 내용의 기사를 태진했다.

기아차가 작년 9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통해 선보인 차세대 스포츠카 쿠페 콘셉트카 ‘키’(Kee)를 발전 시켜 무선게임기 같은 장치로 차량을 조작하는 콘셉트카 ‘키위’(Kee)

Wii를 만들었다는 게 그 요지다. 신 기술의 이름은 ‘독자 운행기술’이다. 이 내용이 사실일까? 기아차 본사의 대답은 “사실 무관”이었다. ‘만우절’을 맞아 기아차 영국법인과 일부 외신이 만든 ‘이벤트’였다.

통상 4월1일 만우절에 ‘사실무관’ 기사’를 보도하는 유럽의 관행을 따라 기아차 영국법인이 일부 친분 있는 외신에 이러한 ‘거짓 보도자료’를 뿐었고, 이를 외신이 흔쾌히 보도에 응한 것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한국인터넷이티㈜ 전남본부	광주 스카이아이피 고객센터 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3	062-360-0503
제이엔비컨설팅	[목포] 현대캐피탈 금융사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04	062-224-5863
네오개발	건설공무 및 경리직 시원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06	062-361-2610
남화토건(주)	토목기사				